

<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<메시아>를 통해 구해야, 확실하게 얻는다.
2. 어느 시대든지 <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씀>이 ‘진리’ 다. 그러므로 <시대 보낸 자>는 ‘절대 생명’ 이요, ‘절대 길’ 이다.
3. <이 시대 주>는 ‘절대 진리의 모순 없는 말씀’ 을 전해 줌으로 ‘하나님의 뜻과 목적’ 을 이루고, ‘생명의 역사’ 를 펴나간다.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<섭리의 길>이 ‘구원의 길’ 이다.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.
4. <하나님이 보낸 메시아>를 모르면 ‘그가 하는 말’ 을 믿지 않으니,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모른다.
5. <하나님이 보낸 구원자, 메시아>를 불신하니, ‘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’ 도 모르고,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제대로 모른다. ‘하나님’ 을 제대로 모르니, 하늘나라에 못 간다.
6. 예수님은 “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(요14:9).” 라고 말씀했다. 이 시대도 <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본 것>은 ‘하나님을 본 것’ 과 같다. - 하나님은 신이시라, 항상 ‘자신이 보낸 육신을 가진 자’ 를 쓰고 나타나신다. 그러므로 <사람이신 주의 육신을 본 것>은 ‘하나님을 본 것’ 이나 다름없다.
7. 하나님은 <시대 보낸 자>를 쓰고 나타나신다. 그 안에 거하시며,

그와 하나 되어 ‘하나님 자신의 일’ 을 하신다.

8. 하나님께 <주의 이름>으로 구하면, 즉시 실행하신다. 하나님은 ‘시대 보낸 주’ 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.

9. 어느 시대든지 <주의 이름>으로 기도하고 구해야, ‘하나님’ 도 ‘주’ 도 함께하여 즉시 실행하신다.

10. 예수님은 “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‘내 이름’ 으로 구하면,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(요14:13).” 고 말씀했다. 이 시대도 신랑이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성령님께 ‘주의 이름’ 으로 구하면, 다 받게 하신다.

11. 왜 <주의 이름>으로 구해야 주시겠느냐.

예수님은 “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(요 16:15).” 라고 말씀했다. 세상의 것들은 모두 ‘창조자 하나님의 것’ 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격인 ‘예수님의 것’ 이 되기도 하니, 신약 때는 <메시아 예수님의 이름>으로 구하면, 다 받게 하셨다.

이 시대도 그러하다.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대 보낸 자를 ‘신부’ 로 삼으셨고, 그도 삼위를 ‘신랑’ 으로 보고 대하니, ‘하나님의 것’ 은 ‘이 시대 보낸 자의 것’ 이기도 하다. 그러므로 <이 시대 주의 이름>으로 구해야, 다 받게 하신다.

12. <아담과 하와>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타

락되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. 그로 인해 ‘하나님’도, ‘만물’도 뺏기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.

<이 시대 보낸 자>는 아담과 하와가 세우지 못한 ‘시대 조건’을 세웠다. 그러므로 ‘하나님’도, ‘만물’도 그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‘이 시대 주의 이름’으로 구해야, 다 받게 된다.

13. <이 시대 주인의 이름>으로 구해야 주신다. 알고 보면, ‘주의 이름’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‘하나님의 이름’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과 같다.
14. 하나님은 <이 시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>에게 ‘즉시, 속히’ 많이 주신다.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 주신다.
15. 하나님은 <시대 보낸 자>를 통해 ‘구원’도 시키시고, ‘영광’도 받으시고, ‘기도 응답’도 해 주신다.
16. 하나님과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<주>를 알고, <주의 이름>으로 구해야 주신다.
17. <주를 제대로 아는 자들>은 ‘주의 이름’으로 구하여 소원한 것을 얻고, 형통했다. <주를 제대로 모르는 자>는 ‘주의 이름’으로 구하지 못하니, ‘이 시대의 것’을 받지 못한다.